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가능성

-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 인 환*

차 례

- I. 중국 조선족 문학의 다층적 정체성 III. 이념의 영역을 넘어선 보편적 인간에
II.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심문하는 연대의 기억 IV.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가능성

국문초록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는 중국의 ‘반우파투쟁’ 및 ‘대약진운동’ 시기를 배경으로 조선족 자치주 지식인의 비참한 삶을 조선족의 시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자 주류민족의 영향 하에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 및 역사에 대한 비판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작가가 체험한 조선의용군 투쟁사의 복원과 맞물린 역사인식

*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은 중국 및 남·북의 현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선의용군의 역사 복원은 남한에 있어 잃어버린 역사 복원을 통한 온전한 민족사 구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한에는 김일성 중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경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바탕한 민족주의적 연대를 환기함으로써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용군 체험은 교조적 공산주의를 넘어서 인간적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김학철 문학의 원형질이 되고 있다. 김학철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염원하며 세계시민에게 말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의 작품이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더불어 <20세기의 신화>에 드러나는 휴머니즘 지향성은 인간의 존재 조건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차원의 비판을 넘어선다.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억압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여기에서 김학철이 추구하는 휴머니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이는 체제와 이데올로기, 민족과 국가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보편적 인간애는 이념의 영역을 넘어선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한민족이되 한국인일 수 없고 중국인이되 중국민족일 수 없는 ‘모순과 분열’의 정체성,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온몸으로 체현한 김학철의 삶과 문학을 통해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삶과 문학 자체에 이질적인 민족, 국가, 문화, 역사의 목소리가 공명하며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20세기의 신화, 중국 조선족 문학, 디아스포라, 정체성,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휴머니즘

I. 중국 조선족 문학의 다층적 정체성

해방 후 중국의 사회발전에서 1957년의 반우파투쟁의 시작으로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의 결속까지는 비정상적인 시대였고 시비가 전도된 왜곡의 시대였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우상화와 개인주의 숭배가 팽배하였고 무산계급혁명, 계급투쟁 등등 시대적 공명들이 난무하였다. 중국의 정치와 문화풍토에서 생활했던 연변도 이런 정치운동의 돌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¹⁾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는 이러한 중국의 ‘반우파투쟁’ 및 ‘대약진운동’ 시기를 배경으로 조선족 자치주 지식인의 비참한 삶을 조선족의 시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²⁾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중국 조선족 문학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곱씹어보게 하는 작품이다.

첫째, 언어적 측면이다. 이 작품의 창작언어인 한글은 중국어와 더불어 자치주 공용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언어인 동시에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20세기의 신화>는 중국문학인 동시에 한국문학의 성격을 지닌다.³⁾

1) ‘반우파투쟁’과 ‘대약진운동’ 및 ‘문화대혁명’ 등이 중국문학과 조선족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편, 『문학사』, 민족출판사, 2006, 254-274쪽’을 참조할 것.

2) 1965년 3월 전·후편 도합 1,350매로 탈고된 <20세기의 신화>는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1966년 홍위병의 가택수색에 의해 원고가 압수되어 발표되지 못하다가 30여년이 지난 후 한국에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인해 김학철은 꼬박 10년(1967-1977) 동안 정역을 살았다(김학철, <20세기의 신화>, 창작과비평사, 1996, 359-360쪽 참조).

3) <20세기의 신화>가 중국(자치주)에서 출간되지 못하고 남한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은 중국조선족 문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듯, 김학철은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박해를 당했다. 이러한 박해는 역으로 이 작품이 중국에서 발표되었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는 중국조선족 문학이 중국의 주류 사회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

둘째, 조선족 자치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삶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삶은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테두리에 속해 있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 체제와 그 너머의 경계에 존재하는 삶인 셈이다.

셋째, 중국의 정치체제(모택동의 개인숭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의 위치에서 다수자의 억압적 통치 체제를, 주변에서 중심 문화의 배타적 속성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고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중국문학의 변방에 머물렀던 중국조선족 문학이 오히려 주류문학보다 더 치열하게 현실에 응전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 4) 이 작품을 ‘잠재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는 중국문학과 조선족문학에 걸쳐 있는 독특한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잠재창작은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문학작품에 상대되는 개념인데, 해방 후 중국문학의 복잡성을 드러내준다. 정상적인 창작 권리를 박탈당한 작가들이 ‘침묵의 시대’에 의연히 사회와 시대와 문학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창작 열정을 버리지 않고 문학 창작을 진행하였다.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작품들이 미학적으로, 인간 정신적으로 몹시 곤핍했던 시대에 있어서 잠재창작은 그 시대의 진정한 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한 척도가 될 수 있다. <20세기의 신화>는 당시의 객관적 환경에서 발표될 수 없었던 잠재창작 작품이었지만 그 암흑의 시대에 있어서 정의의 목소리가 조선족에도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징표가 되며 그 시대를 딛고 일어서는 조선족 소설의 존재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특히 김학철의 잠재창작은 중국문학에 견주어 보아도 10여년이나 앞당겨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한족문학의 경우를 보면 ‘문화대혁명’이 거의 결속에 가까웠던 1970년대 중기에 잠재창작이 많이 진행되었다(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72-273쪽 참조). 이상에서 김학철은 조선족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도 잠재적 문학의 기수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신화>는 ‘문화대혁명’ 중에야 비로소 창작된 한족문인들, 즉 장양의 <두 번째 악수>, 애산의 <파동> 등보다도 거의 10년이나 더 빠르다. 한족문인들의 소설은 비밀리에 창작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다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공개 출판되었다(강옥, ‘김학철 소설의 비판의식 연구-<20세기의 신화>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30집, 중국인문학회, 2005. 1, 407쪽 참조). 이상에서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는 거의 공백기나 다름 없었던 1960~70년대 조선족 문학의 ‘잠재적인 습작’으로 가장 귀중한 유산이 된다(김호웅, ‘중국 조선족문학

이상의 성격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외한인문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언어나 민족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소외시키는 우를 범하곤 했다. 중국 조선족 문학에 있어서 민족적 특성이나 성격은 중국이라는 국가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혹은 민족성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언어로 씌어진 점, 우리와 같은 혈연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한국문학의 범주에 귀속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조선족 문학이 한민족의 지향성을 얼마나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없으며, 쉽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⁵⁾

하여 해방 이후의 중국 조선족 문학을 한국문학의 한 연장으로 보는 시각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⁶⁾ 우선, 이들의 작품이 주로 조선족 자치주에서 그들의 국적으로 쓰인 문학이라는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한글이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한글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

의 산맥-김학철, 『민족문학사연구』 제21호, 2002. 12, 231쪽 참조).

- 5) 김형규, 「중국 조선족 소설 연구의 현황과 현재적 의의」,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8, 45-46쪽 참조.
- 6) 해방 후의 중국조선족 문학은 전 시기의 망명문학이나 이민문학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1945년 해방과 1949년 새 중국의 창건은 중국 조선족에게도 새로운 환경을 부여했다. 해방 후 귀국하지 않는 조선족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중국에 남은 사람들이었다. 해방 전 중국조선족 문학의 중심지는 룡정과 신경(장춘)이었다. 강경애, 안수길, 박팔양, 황건, 현경준 등의 문인들은 룡정과 신경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해방 후 중국공산당의 조직과 행정부서들이 연결에 터를 잡으면서 연결은 서서히 문단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20-223쪽 참조). 이러한 환경에서 고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문인들(김창걸과 리옥 등)과 해방 전 항일투쟁을 진행했던 조선의용군 출신의 문인들(김학철 등)이 합세하여 새로운 문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중국사회에 편입되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학을 창작하기 시작한다.

는 조선족 자치주의 공용어이기도 하다. 모국어로서의 한글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들의 문학이 저절로 한국문학에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세계가 과연 한국의 현실인가 되새겨볼 일이다. 이들의 문학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중국과 한국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기 어려운 중국 조선족의 삶의 양상인 경우가 많다. 한국은 이들의 삶의 뿌리를 이루는 한 원형질로 존재한다. 이 원형질은 한국의 국내 문학이 추구하는 정체성 탐색의 기원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놓인다. 국내 문학이 한국을 중심으로 구심력의 운동 궤적을 그리며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면, 중국조선족 문학에서 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원심력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과 한국 어느 한 쪽의 일방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국조선족 문학의 성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사이에서 길항하고 부유하는 제3의 정체성.’ 이러한 관점에 섰을 때 중국 조선족 문학은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에 새로운 충격을 가하는 의미 있는 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리 문학에는 국경이라는 배타적 경계를 넘어선 지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중국문학에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심문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열린 사회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당위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작품이 부족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박제된 체제의 이념을 넘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염원하며 세계시민에게 말을 걸고 있는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를 통해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⁷⁾

7) 중국 조선족 문학은 다른 지역의 한인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II.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심문하는 연대의 기억

<20세기의 신화>는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자 주류민족의 영향 하에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삶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중국의 현실과 자치주의 현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중국 조선족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⁸⁾

모택동이가 단결음에 공산주의 천국으로 뛰어올라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랄 작정으로 '대약진'을 고안해내고 또 '인민공사'를 만들어낸 결과 중국대륙에서는 유사 이래의 대기근이 들었다. 따라서 이곳 조선민족 자치주의 백수십만 주민들도 그 재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⁹⁾

58년에 시작된 대약진은 그 전해 57년에 당내 및 당외의 '우파분자'들

조선족들은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성립된 이후 자신들의 민족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가 설립되어 조선족 중심의 문학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변대학의 설립으로 조선족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소수민족으로서 중국 조선족 문학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조선족 학교에서는 거의 동일한 시수로 중국어와 한국어로 교육하고 있으며 자치구에는 한국어 신문, 잡지, 방송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한국어 창작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문학의 일원이면서 소수민족의 문학이라는 독자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최병우, 「중국 조선족 문학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8, 21-26쪽 참조). 이러한 민족과 국가, 그 어느 한쪽으로도 완벽한 동질성을 구축할 수 없는 중국 조선족 문학의 특수한 정체성은 국가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폐쇄적인 민족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 8) 중국 조선족 최초의 장편소설이라 일컫는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연변교육출판사, 1954)는 우리 민족의 만주 이주투쟁사를 중국공산당의 역사에 편입시켜 형상화하고 있다. 조선인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민족적 정체성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20세기의 신화>는 중국의 역사 속에 소수 민족이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를 체제와의 긴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9) 김학철, <20세기의 신화>, 창작과비평사, 1996, 12쪽, 이하 작품과 쪽수만 표기.

을 격파한 승리의 기초 위에서 시작된 거라고 모택동이는 명백히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자치주에서 57년에 격파되었다는 당내 및 당외의 우파분자란 도대체 어떤 물건짝들인가(<20세기의 신화>, 17-18쪽).

김학철은 조선족 자치주의 삶을 중국의 정치 현실과 분리시켜 바라보지 않는다. 조선족 자치주 주민의 삶은 중국 대륙을 휩쓸었던 ‘반우파투쟁’과 뒤이은 ‘대약진 운동’의 정치 태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 김학철이 이 작품에서 공들여 형상화하고 있는 문제는 중국/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 정책의 허와 실이다.¹⁰⁾ 그는 여기에 북한(북조선)의 현실을 포개어 놓는다. 조선족 자치주의 현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김학철에게 있어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족 자치주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에 비해 남한(남조선)의 현실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¹¹⁾ 이러한 형상화 비중의 정도는 민족과 국가 사이에 낀 중국 조선족 문학의 현주소¹²⁾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
- 10) 김학철이 이토록 모택동의 반소투쟁을 강하게 문제삼는 데에는 일국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간의 공통의 연대의식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미래를 기획하는 원대한 전망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명철, 『중국의 맹목적 근대주의에 대한 조선족 지식인의 비판적 성찰-중국 조선족 작가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의 문제성』,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8, 144쪽 참조)
- 11) 중국조선족 소설은 우리의 민족정체성을 반성하고 기획하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민족정체성의 타자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족의 역사는 타자의 역사라 불릴 만하다.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주체 세력에 대한 타자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중국의 주류 민족인 한족에 대한 타자인 소수 민족이면서 모국의 한민족에 대해서도 재외한인이라는 타자로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타자의 중층적 역학관계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지도 모른다. 어쨌든 조선족의 소설 담론들은 우리 안의 타자를 비쳐볼 수 있는, 우리 민족문학의 타자로서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김형규, 앞의 책, 66쪽 참조).
- 12) 널리 알려져 있듯, 김학철은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는 바람직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현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체제의 울타리 내에서 그것의 건강성을 심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의 문학이 중국

이들테면, 작가의 삶이 투영된 인물 심조광은 중국공산당 당원이면서 조선독립동맹의 일원으로 항일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그는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일성의 박해로 북한을 떠나 중국에 정착한 공산주의자이다. 하지만 모택동의 반우파투쟁과 대약진 정책에 희생되어 고초를 겪는다. 이처럼 그의 삶에는 중국, 북한의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으나 남한의 현실은 거의 매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항일혁명투쟁과 공산주의의 유산을 공유한 북한/중국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하여, 이 작품에 남한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학과 일정한 거리감을 지니는 수동적 태도보다는, 오히려 남한 민족문학의 결락 부분, 즉 남한의 문학이 의도적으로 방기했던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의 계기로 삼는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¹³⁾ 중국 조선족 문학이 지닌 현재적 의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20세기의 신화>에는 중국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및 한국과 구별되는 중국 조선족 문학의 독특한 민족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시에서 두만강 건너의 옛고향을 그림다고 노래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조국이 아니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로” 극악한 민족주의 분자요

문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쓸 당시 김학철이 조선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조선의 용군 시절의 항일독립투쟁 체험에서 싹텄다는 사실은 중국이라는 국가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13) 김학철의 문학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부정하고, 민중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가운데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를 문학적으로 실천하여 민족 대다수 구성원인 민중의 행복을 염원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의 성격을 추구한다(고명철, 「혁명성장소설의 공간, 민중적 국제연대 그리고 반식민주의-김학철의 <격정시대>론」, 『반교어문연구』 제22집, 반교어문학회, 2007. 2, 231쪽 참조).

기사에서 “슬기로운 조상의 핏줄을 이어서”라는 문구를 쓴 사람은 “고의로 전통에 대한 인식을 혼란시킨 거니까” 교활한 민족주의분자요 (<20세기의 신화>, 33쪽).

조선족 자치주의 주민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그리워하고 기리는 행위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것은 소수 민족의 자치를 인정해 온 스스로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다.¹⁴⁾ 이렇듯 김학철은 <20세기의 신화>를 통해 한족 중심의 민족정책을 비판하며 뿌리 뽑힌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¹⁵⁾

이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 및 역사에 대한 비판 또한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자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작가가 체험한 조선의용군 투쟁사의 복원과 맞물린 북한 체제의 역사 왜곡 비판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및 남·북의 현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선의용군의 역사 복원은 남한에 있어 잃어버린 역사 회복을 통한 온전한 민족사 구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한에는 김일성 중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경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올바른 사회주의)에 바탕한 민족주의적 연대¹⁶⁾를 환기함으로써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폐쇄적 민족주

14)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던 시기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수정주의로 나아가면서 중국과 소련이 분열된 후, 공산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모택동 사상으로 무장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 정책에 변화가 온다. 반우파투쟁기와 문화혁명기를 통해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문화의 독자성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종파주의자나 반혁명분자로 몰리는 시대가 되었고, 조선족이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글로 쓰기는 매우 어려웠다(최병우, 「<고난의 연대>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앞의 책, 252-253 참조).

15) 중국조선족의 독자적인 정체성은 조선과 한국과 같은 민족동포들과의 ‘차별화’ 및 중국 국내 다른 민족들과의 ‘차별화’라는 안과 밖의 이중적 차별화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김관웅, 「디아스포라와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관견(管見)-중국조선족의 최근 몇 년간의 문학을 겸하여 논함」, 『창작21』, 2007년 여름, 234쪽 참조).

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김일성이의 항일무장투쟁사란 건 100페이지두 넘습니다. 그런데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사는 보다시피 요렇게 단 3페이지 반밖에 안됩니다. (중략) 그리구 보다 더 한심한 것은 조선의용군에 관한 겁니다. 조선의용군의 투쟁사는 1페이지두 못되고 반페이지두 못되구……요 것 보십시오. 요렇게 단 한줄 반입니다.” (중략)

“그러니까 김일성이두 그렇구 조선의용군두 그렇구 다 조선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서특필루 떠들어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민족반역자가 안된 게 그렇게두 장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그렇게두 장합니까. 임형두 알다시피 나두 조선의용군의 한 성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내게 두 없습니다.”(<20세기의 신화>, 263-264쪽)

김일성이의 손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피가 묻어 있던 말이에요.” (<20세기의 신화>, 340쪽)

이러한 북한의 이상숭배와 왜곡된 역사 비판은 통일문학을 염두에 두었을 때 잃어버린 반쪽의 역사, 즉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남·북문학의 이질성을 매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통해 “김일성이의 항일무장투쟁사”와 “조선의용군의 투쟁사”를 매개하고 있다는 점은 이념의 영역을 넘어선 가치지향

-
- 16) 김학철은 조선 국적을 가지고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민족해방투쟁에 투신하였다. 코민테른 제6차 대회(1928)의 ‘일국 일당의 원칙’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일본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에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김학철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몸을 던지는 것이 조선민족해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김윤식, 『항일 빨치산문학의 기원-김학철론』, 『실천문학』 1998년 겨울, 416쪽 참조). <격정시대>에서 김학철은 조선의용군과 팔로군의 연대를 통해 항전 시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바 있다. 따라서 <20세기의 신화>에 드러난 조선의용군 투쟁사를 통한 북한 체제 비판은, 반우파투쟁과 문화혁명기 소수민족을 철저하게 타자화한 중국의 폐쇄적 민족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지하듯, 반우파투쟁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 김학철은 조선 국적을 지닌 중국공산당 당원이었다. 그는 일찌감치 북한으로부터 ‘연안파’라는 명목으로 외면당해 중국으로 이주해 정착했으며, 그렇게 찾은 중국에서도 ‘반우파투쟁’의 와중에서 공산당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김학철은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였던 셈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¹⁷⁾에 바탕한 공산주의에의 신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¹⁸⁾ 김학철의 ‘혁명적 낙관주의’는 조선의용군 전사로서의 육체적 기억을 통한 체험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며, 가열 치열한 전쟁과 일본강육에서의 정치범 생활, 해방 직후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한 월북, 조선전쟁 중 중국 피난, 중국에서의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을 겪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신념과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¹⁹⁾

여기에서 ‘조선의용군’ 체험은 <20세기의 신화>가 지닌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항전 시기 팔로군과 조선의용군 사이에 존재했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공동의 적 일제를 향한 민족과 국가

17) ‘혁명적 낙관주의’는 혁명의 성공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낙관적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사상과 생활이 통일된 높은 수준의 정신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김명인은 김학철 소설에 나타나는 ‘혁명적 낙관주의’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넘어선다고 본다.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낙관적 또는 낙천적 분위기는 정치사상적 신념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어떤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수준의 어떤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좁은 의미의 ‘혁명적 낙관주의’를 넘어선 것이며, 의도보다는 과정이 더 살아나는, 생동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의 정당성이 저절로 설득되는 한걸음 더 나아간 경지로 보인다 (김명인, 『어느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초상-김학철론』, 『창작과 비평』, 2002년 봄, 248쪽 참조).

18) 김학철은 1957년 ‘반동분자’로 숙청당한 이래 무려 24년이 흐른 1980년이 되어 서야 무죄판결을 받고 복권된다. 이후 1983년 중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1989년 중국공산당 당적을 회복한다. 김학철이 조선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점이나 중국공산당 당적을 회복한 사실은 자신이 “뿌리박은 터”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 이해영, 『청년 김학철과 그의 시대』, 역락, 2006, 87-91쪽 참조.

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연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의 기억을 통해 김학철은 중국 공산당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민족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김학철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북한의 교조적 공산주의 체제 또한 ‘조선의용군 전사로서의 육체적 기억’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 이처럼 조선의용군 체험은 교조적 공산주의를 넘어서 인간적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김학철 문학의 원형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인류애에 기반한 휴머니즘은 이념의 경계를 넘어 남한의 문학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김학철의 휴머니즘과 남한의 민족문학이 조선의용군 항일무장투쟁의 체험을 통해 만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Ⅲ. 이념의 영역을 넘어서는 보편적 인간애

<20세기의 신화>에 드러나는 휴머니즘 지향성은 인간의 존재조건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차원의 비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억압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여기에서 김학철이 추구하는 휴머니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이는 체제와 이데올로기, 민족과 국가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보편적 인간애는 이념의 영역을 넘어서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모택동 개인숭배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조건마저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비인간적 삶의 양상은 작품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답게 지내던 이웃끼리” “겨 한되 비지 반바가지 때문에 척이 저서” “내왕”이 끊겼으며, “반동분자”로 몰린 “호주들”의 가족들이 “죄 없이” 연좌제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음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법률의 철조망으로 포위된 재소자들”은 “호상 감독하고 호상 적발하고 또 호상 비평”하는 비인간적인 “밀고제도”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훼손당한다.

“계급의 원수의 자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붉은 넥타이와 완장과 반장의 직무”를 잃어버린 “열 살 먹은 아이”의 처지는 모택동 개인숭배체제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열 살 먹은 아이가 하루 사이에 붉은 넥타이와 완장과 반장의 직무를 모두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와 엄마와 집이 하루 사이에 다 없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다시 추어서기 어려운 치명상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그 아이에 대한 사형선고일 것이다!

‘바로 어제까지도 모범생이라고 3년 동안에 상장을 다섯 번씩이나 받은 아이가 본인은 아무 잘못도 저지른 게 없으면서 이른바 계급의 원수의 자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영원히 아몰리지 못할 상처를 어린 가슴에 받고 울며 돌아와야 하는 게…… 이게 그래 사회주의사회란 말인가?’(<20세기의 신화>, 135쪽)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무너지려는 자존심”을 다잡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종신 전과자로 낙인찍힌 공산주의자들”은 신념과 원칙에 충실한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광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신심과 싸늘한 현실에서 오는 암회색의 위압 사이에서 오랜 세월 방황해야 할 고된 운명”을, “인류의 역사는 신념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용사들에 의해 창조된다”는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맞선다. “우마와 같은 고역 속에서 단련된 혁명적 낙관주의”가, “낭만이 고갈된 지 오랜 나라에서 낭만의 맑은 샘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공산주의자의 긍지”가 그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그는 굳

게 믿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죄명을 들썩운 사이비 공산주의자들이 공정하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20세기의 신화>, 133쪽).

이러한 신념은 안데르센, 노신, 셸리, 단테, 이반 테니소비치, 최서해, 김사랑, 새커리, 잭 런던, 스팅달, 졸라, 디킨즈, 헤밍웨이, 미하일 솔로호프 등등 김학철이 이 작품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양한 작가의 삶과 작품에서 드러나듯,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모든 문학(예술)의 가치와 지향을 수용하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이념과 국가, 민족을 초월하는 열린 공산주의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나는 잘 모르기는 하겠소만 사회주의·공산주의란 각자가 다 자신의 뿌리박은 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터의 무한한 번영을 위해 노력 분투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닐는지(<20세기의 신화>, 97쪽).

김학철의 문학은 이처럼 “뿌리박은 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터의 무한한 번영을 위해 노력 분투”하는 보편적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휴머니즘을 지탱하는 두 축은,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따스한 연민의 정서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울곧은 신념이다.

점순이가 메고 가는 목총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데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다만 모택동 일당의 더러운 명맥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주는 작용을 할 뿐이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모택동 일당은 대내적으로 부단히 계급투쟁 소동을 벌이고 또 대외적으로 부단히 가짜 반미, 진짜 반소 소동을 벌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통치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궁경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일평이는 목총 깎아준 것을 조금도 후회는 하지 않았다. 천진한 녀들은 그 목총이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도 역시 어린 점순이의

천진한 애국심을 만족시켜주느라고 두 시간의 노동을 의연(義捐)한 것이었다(<20세기의 신화>, 256-257쪽).

“천진한 녀”들의 순수한 애국심에 조그마한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림일평은 “모택동 일당”의 “더러운 멍택”을 연장시켜 주는 행위에 기여이 동참한 셈이다. 이 작품을 지배하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신념과 원칙은 이러한 따스한 인간애에 바탕하고 있기에 한층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 역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드러난 공산주의적 인물형은 적대적 사회의 긍정적 요소까지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보편적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공산주의적 이념은 이론적 정교함이나 구체적 정책 대안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개인숭배라는 비인간적이고 왜곡된 사회주의 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신념적 차원의 대응에 가깝다.

이를테면, “인식”(읽)과 “실천”(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아래와 같은 명제는 김학철의 삶을 지배해온 일관된 신념이자 원칙이다.

맑스주의는 인식의 학설인 동시에 실천의 학설이다. 알고서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맑스주의자가 아니다(<20세기의 신화>, 314쪽)

김학철은 정치적 관점 혹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맑스주의(공산주의)”를 수용하기보다는 보편적 인류애에 맞닿아 있는 신념이나 원칙의 차원으로 이를 체현하고 있다.²⁰⁾

20) 따라서 이 작품에 드러난 친소적 성향을 정치적 관점 혹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칼 맑스”, “레닌”, “호루시초프”, “소련공산당” 등에 대한 작가의 호의는 모택동의 “개인숭배체제” 비판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러한 호의는 “인민을 굶기는 자”에 대한 거부감과 같은 보편적 심성, 즉 “정직한 공산주의자”의 심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을 태도를 옹호하는 대목 또한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로 충만한 결의”,

이러한 공산주의적 신념은 문학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잘 드러나 있다. 작가가 “자치주에서 유일한 문학잡지인 『아리랑』의 편집인”이었던 립일평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문학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문학이다. 이를테면 이념의 “선전물”이 아닌 “진실”을 표현하는 문학이다. 일평은 “자치주”에 이러한 “사회주의문학의 꽃을 활짝 피워보려”는 “푸른 꿈”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다.

“우리의 시가 단지 모택동시대니 가슴 벅찬 새시대니 하는 따위의 소리만을 외쳐가지구 과연 읽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까요?”(<20세기의 신화>, 25쪽)

립일평은 “이념”을 넘어선 “진실”의 문학을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꿈꾼 문학은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 가 몰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채씨의 모습에서 드러나듯 “모택동시대니 가슴 벅찬 새시대니 하는 따위”의 “구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다.

이러한 비상식의 세계에 맞서 작가는 “개인숭배의 위험을 알리는 붉은 신호등”의 역할을 자처한다. 날카로운 현실인식에 바탕한 풍자정신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문학의 소중한 가치의 하나이다.²¹⁾ 이는 왜곡된 사회주의와 부정한 현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세계

“크낙한 사랑의 비”, “따뜻한 자애의 이슬” 등과 같이 작가의 휴머니즘적 태도를 진솔하게 반영하고 있다.

21) 다음과 같은 대목은 날카로운 풍자정신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인민공사를 ‘초미’라고 명명한 것은 미국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능가(추월)한다는 뜻이다. …(중략)… 소련이 반세기 걸려서도 아직 따라잡지 못한 미국을 모택동 주석께서 고안해낸 인민공사는 그 독특한 신통력을 발휘해서 불과 몇해 안쪽에 따라잡기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잡기만 하잖고 추월, 앞지르기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데 그 독특한 신통력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기발하기 짝이 없게도 그것은 세상이 다 아는 단 한마디의 구호였다. 즉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돈이 **한푼도** 아니 드는 단 **한마디**의 구호였다. 모택동 주석께서는 이 단 한마디의 구호만으로 그 술한 인민공

최대의 강제노동수용소”의 “겨울”을 밝히는 등불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듯,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에는 체제와 이데올로기, 민족과 국가의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 휴머니즘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는 “뿌리박은 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연민의 정서에 바탕한 올곧은 신념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념”을 넘어 “진실”을 옹호하는 이러한 김학철의 작가정신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세계문학의 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IV.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가능성

이제 한 민족이었다는 공동체적 감수성을 환기하는 것만으로는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체성을 포괄하기 어려워졌다. 그들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그 환경과 응전하면서 형성된 현실인식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문학은 영원히 한국문학의 아류, 혹은 중국문학의 변방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울 것이다.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는 국가와 민족, 이념과 체제라는 울타리를 타고 넘는 세계문학으로의 힘겨운 첫발을 내디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편적 인류애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의 자기동일성(자기중심주의)을 심문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에 값한다. ‘공산주의를 넘어선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를 금기시한 우리의 민족문학에 손을 내밀고 있는 김학철 문학의 문제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

사들의 동력을 삼으시고 그리고 손을 번쩍 쳐드시면서 “꽃꽂이 공산주의 천국으로!” 하고 호령을 하셨던 것이다. 마치도 우주로켓에다 고체연료를 장입할 대신에 커다란 메가폰 하나를 쏙셔넣고 “...네엿·세엿·두울·하나아·여영-발사!” 하고 호령을 하듯이.”(김학철, <20세기의 신화>, 창작과비평사, 1996, 42-43쪽, 강조는 인용자)

이다.

김학철은 자신이 밭 디디고 있는 “뿌리박은 터”에 충실하게 응전하면서 문학세계를 일구어 왔다. 김학철은 제국주의와 싸웠고 잘못된 사회주의와 싸웠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사회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기다렸다. 민족해방투쟁의 주체로서 그는 ‘조선사람’이었지만, 민족해방투쟁을 포함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주의적 인간해방의 길에서는 그는 철저히 ‘세계인’이었다. 그는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몸 바쳤지만 조국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중국에서 살았지만 중국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러나 언젠가 다가올 새로운 인간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일국주의적 국경선과 민족적 편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화적 낙관의 힘으로 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늘 미래의 세계인이었다.²²⁾

우리는, 한민족이되 한국인일 수 없고 중국인이되 중국민족일 수 없는 ‘모순과 분열’의 정체성,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온몸으로 체현한 김학철의 삶과 문학을 통해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삶과 문학 자체에 이질적인 민족, 국가, 문화, 역사의 목소리가 공명하며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22) 김명인, 앞의 글, 250-251쪽 참조.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김학철, <20세기의 신화>, 창작과비평사, 1996.

2. 논문 및 단행본

강옥, 「김학철 소설의 비판의식 연구—<20세기의 신화>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30집, 중국인문학회, 2005. 1, 397-410쪽.

고명철, 「혁명성상소설의 공간, 민중적 국제연대 그리고 반식민주의—김학철의 <격정시대>론」, 『반교어문연구』 제22집, 반교어문학회, 2007. 2, 229-253쪽.

고명철, 「중국의 맹목적 근대주의에 대한 조선족 지식인의 비판적 성찰—중국 조선족 작가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의 문체성」,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8, 129-154쪽.

김관용, 「디아스포라와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관견(管見)—중국조선족의 최근 몇 년간의 문학을 겸하여 논함」, 『창작21』, 2007년 여름, 209-254쪽.

김호웅, 「중국 조선족문학의 산맥—김학철」, 『민족문학사연구』 제21호, 2002. 12, 218-249쪽.

김명인, 「어느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초상—김학철론」, 『창작과 비평』, 2002년 봄, 238-252쪽.

김윤식, 「항일 빨치산문학의 기원—김학철론」, 『실천문학』, 1998년 겨울, 391-424쪽.

김형규, 「중국 조선족 소설 연구의 현황과 현재적 의의」,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8, 41-74쪽.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편, 『문학사』, 민족출판사, 2006.

이해영, 『청년 김학철과 그의 시대』, 역락, 2006.

최병우, 「중국 조선족 문학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8, 19-39쪽.

최병우, 「〈고난의 연대〉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8, 251-272쪽.

<Abstract>

The possibility of diaspora literature by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 Focused on a writer consciousness <The Myth of
20th century> by Kim Hak-Cheol

Ko, In-Hwan

<The Myth of 20th century> by Kim Hak-Cheol presents miserable life of ethnic Korean intellectual living in China with 'Great Leap Forward'.

The work completely criticize unilaterally China policy and comprehends life of a minority race. Moreover, the work criticize North Korean history and regime. Kim Hak-Cheol experience Chosun volunteer army. So, he wants to restoration of Chosun volunteer army's history. The work means restoration of lost history to South Korea and straightening up of distortion history to North Korea. And the work criticize closed China nationalism too. Because the work arouses nationalism solidarity based on a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Hence, experience of Chosun volunteer army is an archetype in literature of Kim Hak-Cheol that overcome a doctrinaire communism and head for a human communism. He talks to global citizens with 'socialism in human face'. So his work has possibility of diaspora literature by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Humanism in <The Myth of 20th century> overcome ideological criticism. Because the work raises a basic question to repressive

socialism regime. This means his literature has the capacity to be a world literature. Because his work basis of common sympathy that surpass regime or ideology and nation or state. So that makes a true communist who isn't bound by principle.

We can see a new possibility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through the life and literature by Kim Hak-Cheol. Because he is ethnic of Korea but isn't to be Korean, also he is Chinese but isn't to be ethnic of China. So his life and literature involves so many kind of nation, state, culture and history already.

Key Words : <The Myth of 20th century>, Literature by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Diaspora, Identity,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Nationalism, Communism, Humanism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6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